

[TV]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네티즌 46% “연예인 광우병 발언은 자유”

엠브레인 설문... 19% “자극적 표현은 자제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광우병 언급에 대한 네티즌의 평가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해 ‘표현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지만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했다.

먼저 광우병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고민인 엠브레인이 8~9일 전국 1천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발표한 결과 연예인의 발언에

네티즌이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기있고 소신있는 행동’이라고 지지할 응답자가 19.5%였으며, ‘영향력이 크므로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거나(19.0%) ‘객관적 근거 없이 적절하지 않게 대해 물었다.’ 의견 표현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응답한

답이 33.5%에 달했다. 광우병에 대한 연예인 발언의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59.1%)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자극적이다’(28.8%)는 대다수 ‘자극적이지 않다’(12.1%)에 비해 많았다. 이들 연예인의 발언은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광주 MBC 5·18특별기획 다큐 ‘인권’ 16일 방송

광주 MBC의 ‘5·18특별기획 다큐’ 16일 밤 9시55분부터 연속 방송된다.

‘인권’은 제3세계 빈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운동가이자 지난 2005년, 200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와 암카나 날라피자이트(태국)의 활동을 조명

한 다큐멘터리다.

제1부 ‘암카나의 충격보고서-국가 폭력’에서는 이슬람 인권운동가 암카나 날라피자이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문, 강제실종, 집단학살 등이 벌어지고 있는 태국 남부지역의 실태를 추적했다.

을 위한 투쟁’에서는 도시빈민연합(UPC)을 이끌며 가난한 민중의 인권을 지키고 있는 와르다 하피즈의 활동을 조명한다. 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빈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뛰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의 열정을 통해 빈민들의 희망을 찾아본다. /이은미기자 emlee@



케이블/위성 가이드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챔프, 투니버스, MBC ESPN, SBS 스포츠, OCN, CGV. Lists program titles and times.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CMB 광주방송 (CH15), KCTV 광주방송 (CH5), LIVING TV. Lists program titles and times.

Radio 산책

Table with columns for radio stations: TBN 광주교통방송, CBS 기독교방송, PBC 광주 평화방송, 광주불교방송. Lists program titles and times.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program titles and time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장수운동침대 (Longevity Exercise Mattress) featuring a woman and product details.

Advertisement for 모디쉬 갤러리 (Modish Gallery) showcasing furniture and home decor.